

평화의 사도

재속 프란치스코 피닉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준비형제회 월보

Secular Franciscan Order of Phoenix
St. Daegun Andrew Kim's Forming Group



평화의 사도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

2007년 5월 (제 36호)



에페소서 5 장

¹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닮으십시오. ²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느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¹⁶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¹⁷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²² 아내 된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²³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의 구원자로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 됩니다. ²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²⁵ 남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월례회: 매월 4째 토요일 오후 4시, 회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영적 보조: 장민호 미카엘신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Minister: Michael Reidy (480)722-9446

입회기 양성교재 ‘폰테 콜롬보’

<제17과> 가정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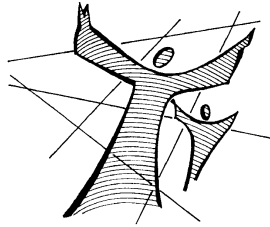
회칙 2장 생활 양식

제 16조

회원은 가정 안에서 평화와 성실, 생명 존중의 프란치스코 정신을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쇠신된 세상의 표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부들은 혼인의 은혜를 살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순수하고 개방적인 크리스천 교육으로 각 자녀의 성소에 유의하면서, 자기 자녀와 함께 인간적이고 영적인 여정을 기쁘게 걸어가야 한다.

가정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안을 받으며 인격을 성숙시켜 나가는 곳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소를 성숙시키는 중요한 곳이다. 재속프란치스칸은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이며, 변화의 원동력인 가정 안에서 평화와 성실, 생명존중의 프란치스코 정신을 살아야겠다.

가정생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가장 기초단위인 부부와 그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자녀로 이루어지며 자녀의 교육을 통하여 전통을 이어가고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이어간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이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며 **사랑**하는 가정, **신앙**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부부사랑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결혼하여 생명의 잉태로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이어가도록 하셨다. 혼인성사로 이루어진 부부는 ‘창조주로부터 의도된 부부사랑과 생명의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소명을 지니며 서로의 결점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 자녀는 하느님께서 부부에게 보내 주신 **사랑의 선물**이며 부부에게 주어진 **성소**이다. 자녀교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도직**이다. 자녀들에 대한 최선의 교육은 가정의 기쁨과 화기에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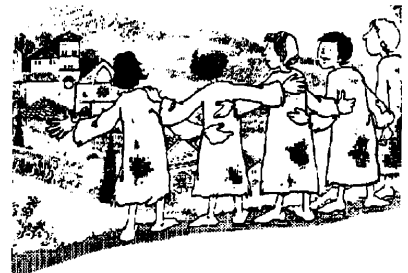


분위기이다. 자녀는 그러한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며 신뢰를 키우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하고, 부족함을 이해하며, 믿음으로 약속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성을 키우게된다. 부모는 자녀의 성소에 유의하여 하느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찾게 해야 하며 영적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동 운명체 오늘날 사회에는 이혼이 만연하여 결손 가정 이 늘어나고, 부모로 부터의 사랑이 담긴 교육을 대신하여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게되며, 발전하는 문명의 쾌락과 안락함만을 추구하여 이기적인 욕심의 결실인 낙태와 불임, 성의 무분별한 쾌락추구, 피임등 생명의 존엄성이 침해 받게 되었다. 재속 프란치스칸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부의 위로가 되어야 하며, 결손 가정의 자녀들과 오늘날 사회 환경에 방치된 자녀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정은 서로를 필요로하는 **공동 운명체**이며 영적인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는 동반자이다. 아름답고 소중한 프란치스칸 정신이 살아 숨쉬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 교회의 볼 수 있는 표지가 되어야 겠다.



성 프란치스코 영적인 권고 <18. 이웃에 대한 동정심>

- 1 이웃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가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을 때 그 이웃이 부족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부족해 주는 사람은 복됩니다.
- 2 모든 좋은 것을 주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종은 복됩니다. 실상 어떤 것이라도 자신을 위해 남겨 두는 사람은 "자기 주 하느님의 돈을 자기 안에 몰아 두는 사람이 되며, 가진 줄 알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타 미주 지역 형제회 소식

♥ 메모리알데이 캠핑(쉐난도)에 가시는 분들은 26일(토) 12시 까지 성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2007년 4월 월보>

♥ 오는 6월 24일(일) 형제회 합동으로 입회 및 서약식이 성 토마스 성당에서 김기수 프란치스코 신부님 주례로 있을 예정입니다.

<제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2007년 5월 월보>



♥ 형제회 잔 꽃송이 성가대가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도틀드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2007년 5월 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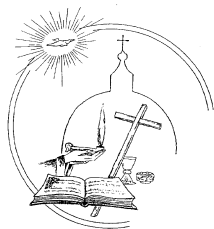


피닉스 준비형제회 소식 및 회계보고

♥ 6월 16,17 1박 2일 김기수 신부님을 모시고 세도나 Chavez Crossing Camp Ground에서 피정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6/10 안선희 글라라



♥ 축하합니다.

지난 5월23일 피닉스 준비형제회 자녀인 이유림 로사리오, 남윤석 매튜, 정한슬 마이클의 견진성사가 Queen of Peace에서 있었습니다.

<회계보고 5월말>

	항목	금액	합계
이월			\$526.03
수입	회비	\$160.00	
	캠핑 수입	\$238.62	
잔고			\$924.65

피닉스 재속 형제회 캠핑을 다녀와서

그 동안 재속형제회 모임을 하면서 다른 구역 공부모임의 형제, 자매님들과는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 한것 같다. 늘 아쉬움을 남기며 돌아서야 했던 월례회! 형제, 자매님들과 정스러운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

드디어, 처음으로 재속회에서 가는 캠핑! 별이 총총 쏟아질것 같은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서로 정을 나누며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노릇 노릇 구어진 군고구마와 군옥수수, 입에서 살 살 살 생각만 해도 흐음!!침을 뉘아본다. 다음날 아침 뻘스레한 얼굴로 모여서 상큼한 마음으로 성무일도를 바쳤다. 자연속에서 바치는 성무일도, 새로운 느낌이었다. 그 와중에도 드르렁 링링 ... 기도 소리를 자장가로 듣고 쿵 쿵 누구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나하고 많이 가까운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아마도 꿈 속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나지 않았을까? 짧은 일정으로 바쁘게 다녀온 캠핑이지만 형제 자매님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낼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다.

안타깝게 같이 자리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 께서도 마음은 한자리에 있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김기수 신부님을 모시고 피정을 드리는 자리에는 꼭 같이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끝으로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 감사드립니다. 맛 있고 영양가 많은 고기를 준비해 주신 명옥순 엘리사벳자매님, 얼큰한 안주를 만들어 주신 홍철옥 프란치스코형제님, 멋진 트레일러에 가득 준비해 주신 남주현 미카엘형제님과 멋진 라이프 가드 홍종규 작은 형제님! 당신들이 있었기에 이 번 캠핑이 더욱 더 즐거웠습니다. <이지연 크리스티나>

“내 것이다!”

한 노부인이 죽자 천사들이 그 부인을 심판석으로 데리고 갔다. 부인의 기록을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 심판관은 그 부인이 자비를 베푼 사례를 하나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단 한 번 굶주린 거지에게 당근 하나를 준 것 외에는.... 그러나 단 한 번 베푼 사랑의 행위가 지닌 힘이란 그럴듯이 큰 것이기에, 그 부인을 그 당근에 힘입어 하늘로 올려지도록 결정되었다.

심판관은 그 당근을 법정에 가져오게 해서 부인에게 주었다.

부인이 당근을 손으로 잡는 순간, 당근은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줄이 잡아당기는 듯이 위로 올라가면서 부인을 하늘로 향하여 들어올렸다. 그 때 거지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그 부인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서 함께 다라 올라갔다. 셋째 사람이 그 거지의 발을 잡았고 그도 올라갔다. 이내 그 당근 때문에 하늘로 올려지는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나 그 부인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저 모든 사람들의 무게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그 부인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기에 그들을 못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점점 높이 올려져서 드디어 거의 하늘의 문 앞에 까지 이르렀다. 노부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 세상의 모습을보기 위해 뒤를 돌아본 바로 그때, 자신 뒤에 줄지어 달려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자, 부인은 몹시 화가 났다.

그리고 오만하게 손을 내저으며 외쳤다.

“놔요, 놔 당신들 모두! 이 당근은 내꺼라고요!?”

노부인은 오만한 손짓을 하느라고 잠시 당근에서 손을 놓아 버렸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래로 떨어 졌다.

지상의 모든 악에는 단 한 가지 원인이 있을 뿐이다.

“내 것이다!” 라는

